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 활성화사업' 순항

2025년까지 원도심 근대건축자산 보수·정비

전시·체험·창업공간 활용 원도심 활성화 모색

목포시가 원도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3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 원도심은 조선시대 목포진부터 근대의 관공서·주거·상업시설 등 역사문화자원이 밀집해 있다.

노동운동, 소작쟁의, 항일운동 등 일제강점기 당시 민중의 저항이 펼쳐진 공간이자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쉼이 있어 '지붕없는 박물관'으로도 불린다.

특히 3대항 6대도시로 번성했던 근대 목포를 엿볼 수 있는 격자형 도로를 비롯해 옛 목포일민영사관,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옛 호남은행, 경동성당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근대건축물이 많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근대건축자산을 보수·정비해 역사성을 보존하는

한편 전시·체험·창업공간으로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를 모색한다.

또 유달·만호동 일대의 가로경관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원도심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에는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을 목포의 맛과 예술적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목포 대중음악의 전당'으로 재탄생시켰다.

또 옛 일본영사관 앞 국도 1·2호선 기점공간을 정비하고, 민어거리 쉼터 등을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해 도보 여행의 여건을 개선했다.

사업은 2023년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옛 대광전자 상가와 옛 아마하 선의기 창고 건물을 보수하고, 갑자옥 모자점~목포전막사 구간 전선 지중화, 골목길 가로경관 정비, 경



관조명 설치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펼쳐진다.

시는 원도심이 주민들이 거주하는 삶의 현장이라는 점도 중시하고 단순히 건물 입면·간판 등 외관을 수리하는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영암군, 2023년 산림소득 분야 지원사업 신청접수

영암군은 2월 10일까지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산림소득 분야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조금의 규모는 19억원 상당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농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임산물 유통공급체계 구축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총 10개 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장비, 저장시설, 임산물 상품화 사업, 임산물 생산 장비 지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등이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영암군 홈페이지(www.yeongam.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업계획서와 임업(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영암군은 다음달 10일 신청이 마감되면 3월 중으로 접수된 보조사업에 대해 현지 확인과 심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오는 31일까지 140명 선착순 모집

무안군은 지난 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23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 1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 앱(APP)과 연동되는 스마트밴드(활동량계)를 활용하여 건강, 영양, 운동 등 영역별 전문가가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6개월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참여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업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무안군민 중 혈압,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검사결과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한 자를 우선 선정하며 만성질환을 진단받아 약물복용 하는 자나 2022년 참여자는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 간 3번의 건강검진(최초/중간/최종)을 실시하며, 24주간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모바일 앱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비대면 건강상담을 제공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전화(061-450-5061, 450-5109)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귀농귀촌인 창업·주택구입비 등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 최대 3억원 지원

함평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귀농귀촌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귀농·영농정착,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 등 3개 사업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이다.

지원 요건은 전입 5년 이내의 귀농인 또는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을 지원한다. 고정금리 연 2%(변동금리 선택 가능),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함평=김광준기자

귀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전입 5년 이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농기계 등 영농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보조 50%, 자부담 50%)을 지원한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리모델링·보일러 교체·지붕 개량 등 농가주택 수리비 800만원(보조 70%, 자부담 30%)을 지원하며, 자격요건은 영농정착 지원사업과 같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신안군, 제1회 농업 메타버스 컨퍼런스 공동 주최

신안군은 11일 서울 AT센터에서 「제1회 농업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데이터저래스(KDX)와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농업 메타버스'를 주제로 가지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메타버스 플랫폼을 농업·농촌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승환 박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기조강연 '메타버스 혁명과 농업의 미래'를 시작으로 이철형 전략기획위원장(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 '메타버스가 바꾸는 지역의 미래', 성제훈 디지털농업추진단장(농촌진흥청)이 '해리가 셀리를 만나면 사랑이 싹트는 데, 농업이 메타버스를 만나면?', 이준연 대표(맘테크)가 '농업행성 토리버스 타고 메타버스 시동'이란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우환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신규 금연지도원 위촉·직무교육



영광군은 지난 12일 영광군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금연지도원 위촉식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신규 금연지도원 8명, 금연 홍보대사 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금연 관련 법령, 금연지도원 직무 및 단속요원 자세 등 금연지도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금연지도원은 오는 2월부터 관내 2,306곳의 금연구역에 대한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 구역 흡연행위 감시·계도, 금연교육지원 및 홍보 등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금연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병행 실시하게 된다.

2월에는 졸업식, 분방학 기간에 따른 청소년 유희업소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 대한 '청소년 흡연 예방 캠페인 및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